

아름다운 오해

원작/안톤체흠

연출/김태진

12월 16일 ~ 19일

PM5 : 00, 7 : 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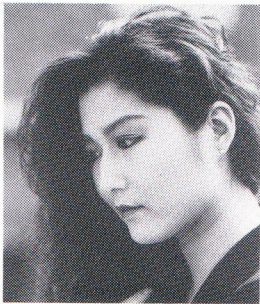
연출의 변

작품이라기 보다 작업이었다는 말을 우선하고 싶다.
 체흠을 재구성하느냐, 체흠의 정통성을 그대로 보여주느냐에 고민했고,
 결국, 체흠의 해체보다는 정통성에 치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.
 체흠의 사실주의는 인간의 내면과 언어의 불일치,
 그것은 곧 갈등으로 연결되고 만다.
 이것이 인간의 일상이라고 한다면
 이 작업 역시 매우인간적이고, 비인간적인 면을 함께 내포했다 하겠고,
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적인 것일게다.
 지금껏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신 배우, 스탭진들께 감사드립니다.

작품해설

인간의 인생에서 비교적 중요한 부분인 결혼,
 한 남자의 청혼으로 빚어지는 헤프닝
 여기서, 인간이 가진 다면적인 성격들을 아기자기하게 보여준다.
 그래서, 체흠의 소설이나 희곡들은 잔잔하게 우리들에게 파고드는지
 모르겠다.
 인간이 불합리한 언어의 동물이라면 이극의 불합리한 언어는 사건의 갈등과 해결에 커다
 란 역할로 등장한다.
 합리적인 사고와 불합리한 행동, 언어
 그리고, 소박한 인간들의 모습.

CAST



나탈리아/김 현 경



츄부코프/박 동 민



로모프/김 영 웅

STAFF



연출/김 태 진

- 무대장치/박 병 철
- 조 명/이 판 원
- 음 향/김 보 영
- 의 상/이 근 희

제4회

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



참가극단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◎광주(극단Y) | 놀부전 |
| ◎인천(극단마임) | 최규호의 판토마임“무제” |
| ◎부두극장 | 아름다운 오해(원제: 청혼) |
| ◎부산무대 | 연약한 침입자 |
| ◎장우기획작품 | IF(만약...) 부제: 칼로물베기 |

■주최: 부산소극장협의회 ■주관: 부산문화이벤트
■후원: 부산직할시

* 본 공연은 '93년 부산직할시 문예진흥기금으로 공연됨